

점점 늦어지고 있는 그랜드슬램 우승의 첫 경험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하던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느꼈을 때 등 누구나 잊지 못할 첫 경험이 있다. 테니스 선수에게는 아마 테니스 대회 중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랜드슬램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오픈시대 이후 그랜드슬램 우승을 첫 경험한 선수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니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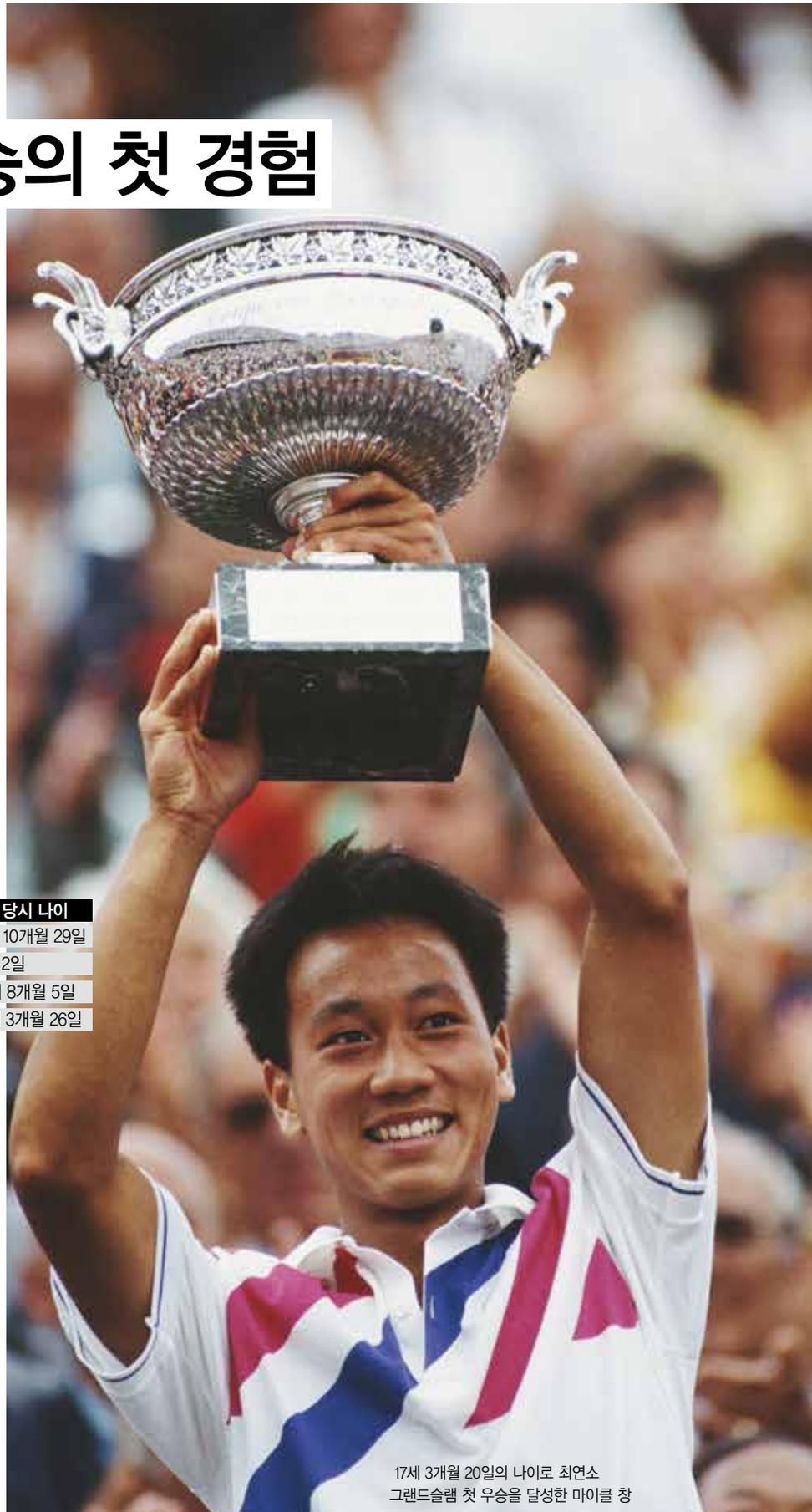
오픈시대(1968년 프랑스오픈) 이후 올해 Wimbledon까지 총 202차례의 그랜드슬램이 열렸고 총 51명의 챔피언이 탄생했다. 최연소로 첫 우승을 달성한 선수는 마이클 창(미국)으로 1989년 프랑스오픈 우승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 3개월 20일이었다. 최고령 선수는 안드레스 기메노(스페인)로 1972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그의 나이는 34세 10개월 1일이었다. 빅4라 불리는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앤디 머레이(영국)의 그랜드슬램 첫 우승 기록은 아래와 같다.

연도	선수	대회	생년월일	우승 당시 나이
2003	페더러	Wimbledon	1981년 8월 8일	21세 10개월 29일
2005	나달	프랑스오픈	1986년 6월 3일	19세 2일
2008	조코비치	호주오픈	1987년 5월 22일	20세 8개월 5일
2012	머레이	US오픈	1987년 5월 15일	22세 3개월 26일

51명의 선수가 처음 그랜드슬램 우승한 평균 나이는 23세 6개월이다. 이 선수들을 나이순으로 배치했을 때 가장 가운데 오는 선수(통계학에서 중간값의 개념)는 야니크 노아(프랑스)다. 1983년 프랑스오픈에서 처음 우승할 때 그의 나이는 23세 18일이었다. 빅 4 모두 평균보다 이른 나이에 첫 그랜드슬램 우승을 달성했다.

첫 우승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랜드슬램은?

대회명	횟수	비율
호주오픈	11	22%
프랑스오픈	20	39%
Wimbledon	7	14%
US오픈	13	25%



17세 3개월 20일의 나이로 최연소 그랜드슬램 첫 우승을 달성한 마이클 창



총 20명의 선수가 프랑스오픈에서 첫 우승을 경험했는데 윌블던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다. 이외에도 프랑스오픈은 최연소, 최고령 그랜드슬램 첫 우승 기록 뿐만 아니라 1995년~1998년과 2002년~2005년 두 차례나 4년 연속 서로 다른 챔피언이 탄생했다. 이는 프랑스오픈이 이번이 많이 일어나는 클레이코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4세 10개월 1일의 나이로 그랜드슬램 첫 우승을 차지한 안드레스 기메노

그랜드슬램 첫 우승의 노쇠화

남자 첫 그랜드슬램 우승자들을 10년 단위로 구분(오픈시대 이후 1970년 대회까지는 1970년대에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그랜드슬램 총 52회 (1977년 두 차례 호주오픈 포함)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수 : 총 15명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평균 나이 : 24세 7개월

1980년대

그랜드슬램 총 39회 (1986년 호주오픈 미개최)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수 : 총 10명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평균 나이 : 21세 6개월

1990년대 - 그랜드슬램 총 40회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수 : 총 12명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평균 나이 : 23세 5개월

2000년대 - 그랜드슬램 총 40회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수 : 총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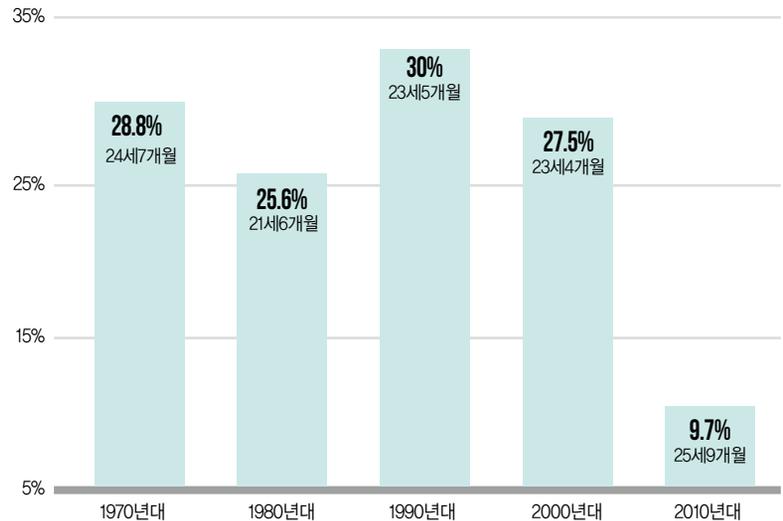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평균 나이 : 23세 4개월

2010년대~현재 - 그랜드슬램 총 31회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수 : 총 3명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평균 나이 : 25세 9개월

시대별 첫 그랜드슬램 우승자 나이와 비율



위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은 1980년대와 2010년대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들의 나이이다. 1980년대 그랜드슬램 첫 우승 평균 나이가 21세 6개월로 유독 낮은 것은 70년대 첫 그랜드슬램 우승을 경험한 총 7명의 10대 선수 중 5명이 1980년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대 남자 테니스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대교체가 꾸준하고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2010년대를 제외하면 그랜드슬램 첫 우승자 비율이 25.6%로 낮은 것 또한 어린 시절 그랜드슬램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대의 경우 첫 우승자 평균 연령은 25세 9개월로 부쩍 올라갔다. 여기에 추가로 눈여겨볼 사항은 첫 우승자 탄생 비율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 비율이 9.7%로 떨어지는데 이는 1980년대의 25.6%보다도 16%나 떨어진 수치다. 그랜드슬램 첫 우승을 하는 선수들의 나이는 올라가고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현역 선수 중 그랜드슬램 우승을 경험한 가장 어린 선수는 1988년생 후안 마틴 델 포트로(09년 US오픈)와 칠리치다. 1990년 이후 출생자 중 그랜드슬램 우승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며 현재 20대 선수 중 그랜드슬램 우승자 역시 전무하다. 2008년 US오픈부터 시작된 빅4의 10년 넘는 장기집권은 테니스 팬들에게 커다란 흥미를 가져왔다. 하지만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있어서는 이전 시대만큼의 흥미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11년 이후 총 31명의 그랜드슬램 우승자 중 빅4가 아닌 선수는 바브린카와 칠리치의 총 5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페더러와 나달은 아직도 그랜드슬램 우승뿐만 아니라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조코비치 역시 올해 Wimbledon 우승으로 화려한 부활을 알렸고 머레이는 현재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미 정상을 경험한 선수이기에 곧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페더러가 자신의 37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조코비치와 머레이는 31세다. 이제 빅4 중 누가 갑자기 은퇴를 발표한다고 해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빅4가 모두 건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새로운 선수가 첫 그랜드슬램 우승 트로피를 품는 날이 오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월로 인해 빅4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

클_ 백승원 객원기자 사진_ GettyImagesKorea

지난 6월 18일 36세 10개월의 나이로 최고령 세계 1위에 등극한 페더러

오픈시대 이후 10대에 그랜드슬램 첫 우승을 한 선수들

연도	선수	생년월일	대회명	나이
1974	비외른 보리(스웨덴)	1956년 6월 6일	프랑스오픈	18세 10일
1982	매츠 빌란드(스웨덴)	1964년 8월 22일	프랑스오픈	17세 9개월 15일
1985	스테판 에드베리(스웨덴)	1966년 1월 19일	호주오픈	19세 10개월 19일
1985	보리스 베커(독일)	1967년 11월 22일	윌리엄스톤	17세 7개월 15일
1989	마이클 창(미국)	1972년 2월 22일	프랑스오픈	17세 3개월 20일
1990	피트 샘프라스(미국)	1971년 8월 12일	US오픈	19세 28일
2005	라파엘 나달(스페인)	1986년 6월 3일	프랑스오픈	19세 2일

2010년대 그랜드슬램 첫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

연도	선수	생년월일	대회명	나이
2012	앤디 머레이(영국)	1987년 5월 15일	US오픈	22세 3개월 26일
2014	스탄 바브린카(스위스)	1985년 3월 28일	호주오픈	28세 9개월 29일
2014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	1988년 9월 28일	US오픈	25세 11개월 11일